

낙동강 남부지역의 상례문화 실태 조사*

- 부산의 교사집단을 중심으로 -

Customary Funeral Rites of Teachers in the Southern Nak-dong River Area

신라대학교 사회복지·가족학부
교수 이기숙**
Division of Social Welfare & Families, Silla University
Professor : Lee, Ki-Sook

〈Abstract〉

Korean funeral custom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mourning process in Korea. A survey was conducted in the southern part by the Nak-dong river, centered around the city of Busan to examine Korean funeral rite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survey research. The target population included 234 teachers and experienced the death of a family member within the last three years.

Results showed that they presented their condolences 5 to 6 times on average per year. Funeral rites were performed usually at a hospital funeral hall. The preference of burial to cremation was about the same. According to the survey, funeral expenses averaged 9,570,000 won and donations received for funeral expenses, 12,630,000 won. Problems the respondents expressed about the process included large funeral expenses, the decision whether to bury or cremate, and fatigue from staying up all night.

Wh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Frequency of attending funerals depended on gender, age, and health status. Condolence style depended on religion. The type of funeral (burial or cremation) depended on family income. The type of reception depended on gender. Funeral expenses depended on the age.

Secon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a family member's death, they thought it was important to prepare a funeral ceremony portrait of the deceased and a scroll by themselves, and the preparation of the portrait significantly depended on health statu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ariables such as the location of death and the laying-out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rd, in the process of treating the death, there appeared a tendency for only family members in a direct line to the deceased to wear funeral garments and participate in the encoffining ceremony. They preferred Western-style funeral garments. They did not think that they needed to wail or that the pallbearers should only be relatives. They did believe that a memorial service should be held before the hearse depart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ach step in this process was examin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consistency in responses whether the Sam-woo-je should be maintain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ach step in this process was examin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cluding: presence of wailing depended on religion; wearing of funeral garments depended on gender, hometown, and religion; coffin carriage, memorial rite, and Sam-woo-je depended on age, religion, and family income.

Finally, in the process of acknowledging the death, the period of mourning was usually three days.

▲주요어(Key Words) : 상례(funeral rites), 상례문화(funeral customs), 의례절차(ritual process), 죽음(death), 낙동강지역(Nak-dong river area), 교사집단(teachers)

* 본 논문은 2003년도 신라대학교 낙동강연구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 저 자 : 이기숙 (E-mail : kisslee@silla.ac.kr)

I. 들어가면서

인간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생애 전이를 경험한다. 이 전이를 통과의례(通過儀禮, rites of passage) 혹은 관혼상제(冠婚喪祭)라 한다.¹⁾ 통과의례와 관혼상제는 대단히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두 용어에는 다 의례(儀禮, ritual)가 내포되어 있다. 이 의례는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형식성을 가지며 특히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의례는 가족의 결합, 확대, 소멸을 상징한다. 특히 상례(喪禮, death rituals)²⁾는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 예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관혼상제의 의례 중에서 죽음에 관한 의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장현섭, 1996). 전통적 상례는 임종에서 탈상까지 총 31개 절차로 이루어졌으나, 현대에 와서는 많이 축소되어 13개(조선일보, 1988), 5개(보건복지부 '가정의례준칙'의 장례제식(葬禮祭式) 참조) 정도만 실행되고 있으며, 그 절차를 수행한다하더라도 형식이 많이 간소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원래 유교적 규범의식에 의해 생활형식을 중히 여겨 왔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제 기능이 축소되면서 전통적 가족문화 내지 가족의례는 많이 상실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전통에 관한 성찰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전통적 관혼상제의 형식이 복원되기도 하면서 대중적 관심 주제가 되었다. 또 특히 상례와 제례는 전통적 관습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많은 가족갈등을 야기 시키면서도 혼례에 비해 비교적 전통적 형식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장묘문화의 급격한 변모(매장에서 화장으로), 기독교 혹은 천주교식 장례식의 확산, 장례산업의 확산으로 전반적 상례문화는 편이성과 상업화에 얹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향후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되면 노인관련 연구와 실버 산업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리라고 볼 때, 전통적인 죽음의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변용되어 있으며 향후 다시 어떻게 변용되어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노인기 마지막 발달단계를 잘 완수한다는 개인적 의미와 죽음이 새로운 가족문화의 창출이라는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장례식의 상업화가 가지고 온 문제점도 미리 예견해

1) 통과의례는 출생의례,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고, 관혼상제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뜻한다. 둘 다 인간이 생애에서 거쳐야 할 관문을 뜻하는 의미는 일치하나, 서구사회에서 통용되는 통과의례는 제례가 없고, 유교의 규범인 관혼상제에는 출생이 빠져 있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박혜인, 2001c, 33).

2) 상례(喪禮)와 장례(葬禮)가 혼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정의례준칙에서 상례는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모든 의식절차를 포함적으로 말하고 있다. 반면 장례는 사망 후 매장 혹은 화장 시 행하는 의례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상례는 장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안호용, 1989, 18). 본 논문에서는 장묘문화까지 포함하여 '상례'라고 사용하고자 한다.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그간 의례에 관한 연구(이길표, 1989; 이정우·김명나 1990; 박혜인, 1991; 장상옥, 2003 등)는 다소 있었지만 상례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상례를 다른 연구로는 장현섭(1996)이 현대한국인의 상례관행을 죽음의 질이란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와 박혜인·신기영(2001a), 박혜인·조은숙(2001b)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누어 가족/친족 의례관행의 실태분석을 하면서 상례의 일부분(절차의 주도자, 장례장소, 상주의 복장)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장현섭(1996)과 박혜인 외(2001a, 2001b)의 연구는 상례의 전 과정에 걸친 제 절차를 다 다루지 않았다는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외 시민단체에서 사회계몽을 목적으로 경조비(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4), 장례비용(생활개혁실큰범국민협의회, 1999), 장묘문화(대한주부클럽연합회, 1999), 장례문화(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6, 2000) 등에 관한 실태조사 차원의 연구 등은 있다. 그러나 이 선행연구들은 상례의 전 과정(임종에서 분묘까지)를 다 다루지 않아 상례의 어느 절차가 어떤 모습으로 변용되어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례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례문화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급격히 획일화, 상업화되어 가고 있는 제 가족의례의 변화를 보면서 의례의 형식성의 변화는 수용한다하더라도 의례가 내포하고 있는 가족공동체의식에 대한 성찰은 특히 가족해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 향후 가족의례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우선 일부지역(낙동강 남부지역-부산을 중심으로)에 한정시켜 상례 전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상례의 제 과정(절차)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변용·유지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내용은 첫째, 상례문화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상장례의 세 과정(죽음을 맞는 과정, 죽음의 처리 과정,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별 의례형식과 내용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하고, 셋째, 상례문화와 상장례 세 과정별 형식과 내용에 대한 태도가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낙동강 남부지역의 변화하는 상례문화를 설명해주고, 상례문화와 관련성이 있는 인구학적 변인들을 탐색하는 의의를 지닌다.

II. 이론적 고찰

1. 의례의 상징

의례(rituals)에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관련된 형식적이고 규정된 행동 패턴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형식은 의미(상징성)를 내포하고 있다(Bossard & Boll, 1950; 재인용 정현숙 외, 2001, 566). 그리고 규정된 의

례절차에는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어느 사회에서나 다른 나름의 독특한 관·혼·상·제례(冠·婚·喪·祭禮)의 절차와 방식이 있다. 그리고 한번 규정된 의례형식은 잘 변하지 않으며, 전통이 오래될수록 변화에 대한 저항도 크다. 그러나 동시에 의례는 지속적인 반복을 통하여 그것을 행하는 절차와 방식의 정당성을 점진적으로 창출해냄으로 그 형식은 변화하며 그 의미도 시대에 맞게 해석된다.

따라서 의례란 그 시대의 문화이며, 특히 가족이 주체가 되는 제반 통과의례 혹은 관혼상제 등에는 가족기능으로 볼 수 있는 문화전수 활동이 있다. 즉, 제반 의례를 통한 가족의식의 세대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의례란 가족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의례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족은 결속감과 소속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특히 생일기념 등은 부부나 가족원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가능하다), 이 의례를 통해 다시 한번 누구나 삶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며 준비하는 예비사회화의 기능을 가족이 가지게 됨으로 가족은 중요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진다(예를 들면 장례식은 가족원들에게 애도와 상실감을 표현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앞으로의 생활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의례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지만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강조하는 의례, 절차가 다르다. 우리 사회도 역사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규범과 절차로 통과 의례가 진행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우리 생활에서 행해지고 있는 통과의례에는 조선시대의 잔영이 많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은 효(孝)를 근본으로 하여 출산과 관례, 혼례 외에도 상례와 제례를 중시하였으며, 모든 통과 의례가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고 조상을 받드는 데 집중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통과의례는 관례를 제외한 혼례, 상례, 제례가 모두 가족의례로 행해지고 있으며(제 의례절차가 상업화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개인적 행위이기 보다는 가족적 행위이며), 관례는 공적 의식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거행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상례(喪禮)는 한 개인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통과의례이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이별하는 분리의례로서, 상중에 행하는 모든 의례를 포함한다.

전통적인 상례 절차는 다음 장에서 기술되나 우리 사회의 과도한 의례경비와 지키기 어려운 형식중심의 의례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는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해 최소 범위의 의례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등 상례의 형식과 절차는 변용되었다.

2. 상례 과정과 변용

죽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과정, 혹은 죽음을 다루는 과정을 상례(喪禮)라 하며 보통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제 절차를 의미한다. 죽음을 치루어 내는 형식은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느냐 혹은 단절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상·장례 의식을 지배한 것은 유교적 죽음관으로, 삶과 죽음을 연속되어 있는 즉 죽음을 삶의 과정으로 보는 죽음

관이었다(장철수, 1984, 94-95).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장례 절차는 31개 절차³⁾로 이루어졌으나, 현대에 와서는 1단계(임종, 수시, 발상 부고) 4개 절차, 2단계(습, 입관, 성복, 발인, 운구, 하관, 성분(매장/화장), 삼우) 8개 절차, 3단계(탈상) 1 개 절차로 총 13개 절차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가정의례준칙’의 장례제식(葬禮祭式)에 의하면 장례 절차는 더욱 축소되어 발상, 부고, 성복, 운구, 발인제/의령제 5개 절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절차상 임종, 수시, 습, 입관, 운구, 하관, 성분(매장/화장)은 주검의 처리과정에서 병원/장례식장과 묘지/화장막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언급이 불가능한 절차이며, 발인, 삼우는 유족에 의해 성립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 절차이다. 이렇게 절차가 단축된 것은 짧은 기간의 상기간(喪其間)과 사당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주택 구조, 그리고 이러한 절차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거의 그대로 시행될 수 없는 의례에 따르는 비일상적인 요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위에 경제적인 이유도 절차의 흡수나 소멸의 사유가 된다고 본다.

이 긴 상례절차를 장철수(1984, 95)는 죽음과 삶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세 과정 즉 죽음을 맞는 과정,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상례절차를 구분하여 ‘죽음을 맞는 과정’에는 임종, 수시, 고복, 발상, 설전, 부고가 포함되며,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소령과 대령(입관), 성복, 조문, 발인, 운구, 초우와 삼우가,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출곡, 부제, 소상, 대상, 담제, 길제가 있다.⁴⁾

1) 죽음을 맞는 과정

죽음을 맞는 과정에는 천거(遷居), 복(復), 수시(收屍), 역복(易服), 전(奠), 부고(訃告) 절차가 있다(장철수, 1984). 조선일보사 자료(198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임종(臨終), 수시(收屍), 고복(臯復), 발상(發喪), 전(奠), 치관(治棺), 부고(訃告)까지를 초종(初終)이라 하여 상례의 첫 단계로 보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의 병원 및 전문장례식장에서 행해지는 제 절차를 참고하여 현대에 와서 생략된 고복을 제외한 임종, 수시, 발상, 설전을 죽음을 맞는 과정으로 보고 정리하고자 한다.

0. 임종(臨終) : 운명(殞命)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죽는 때를 말한다. 평상시에 거쳐하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환자를 눕힌 다음 요나 이불을 새 것으로 바꾸고 옷도 깨끗한 것

- 3) 의례 전체의 절차를 예서에서는 초종에서부터 길제까지 모두 31개의 절차로 나누고 있다. 즉 초종(임종-수시-고복-발상-전-고묘-치관-부고)-호상-역복-습-소령-대령-성복-조문-치장-천구-발인-운구-하관-성분-반곡-초우-재우-삼우-줄곡-부제-소상-대상-담제-길제이다. 이에는 문상(聞喪)은 제외되어 있다. 반면에 관행에서는 대체로 13개 내외 절차로 시행되었다고 한다(장철수, 1984, 90-102 ; 남민이, 2001a, 59)
- 4) 제 절차에 관한 설명은 이기숙(2003) 논문을 참조.

으로 갈아 입힌다. 이 절차는 현대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혈족이 운명(覓命)할 때 곁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병자가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짙은 색의 깨끗한 옷을 골라 갈아입히고 거처하던 방과 운명한 뒤 모설 방도 깨끗하게 치워둔다. 유언(遺言)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고, 병자가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친족 친지에게 속히 연락하여 운명을 지켜볼 수 있도록 손을 써야 한다.

0. 수시(收屍) : 숨이 끊어지면 먼저 눈을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입과 귀와 코를 막고 머리를 높고 반듯하게 된다. 시체가 굳기 전에 손발을 고루 주물러 편 다음 두 손을 한데 모아 묶고, 발도 가지런히 하여 묶는다. 이는 사지를 뒤틀리지 않고 반듯하게 하기 위함이다. 백지로 얼굴을 덮고 그 위에 홀이불을 덮는다. 이 절차는 아주 정성껏 해야 한다. 만일 소홀히 하면 수족이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으므로 염습(殷襲)할 때 큰 걱정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끝나면 곡(哭)하는 집도 있다. 이 절차는 현대에 와서는 다음과 같이 이행된다. 즉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머리를 약간 높게 하여 피고,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이를 수시 또는 정제수시(整齊收屍)라고 한다. 얼굴에 백포를 씌우고 홀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뒤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린다.
0. 발상(發喪) : 발상이란 초상 난 것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상주(喪主)와 주부(主婦)를 세우며 호상(護喪)은 예법을 아는 사람으로 정해서 초상 일을 모두 그에게 물어서 하게 한다. 호상은 상주와 의논하여 장의사 선정, 장일과 장지의 선택 등의 일을 한다. 발상은 현대에 와서는 가족이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호곡은 삼가 하며 '근조'라고 쓰인 등을 달아 놓거나 '상중' 또는 '기증'이라 쓰인 네모난 종이를 대문에 붙여 초상을 알리는 것으로 그 절차를 수행한다. 상제의 범위는 친족의 범위와 일치하는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이다. 호상이 모든 일을 주관하며 부음도 알리고, 전문 장례식장이나 장례관련 업소에서 과거의 장의사가 하던 역할을 수행한다.
0. 설전(設奠) : 돌아가신 분을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모신다는 뜻에서 포와 젓갈을 올려놓은 탁자를 시신의 동쪽 어깨가 닿는 곳에 놓는다. 이를 설전이라 한다. 젓갈뿐만 아니라 평소에 즐기던 음식을 올려도 상관없다.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꽃을 올려놓기도 한다. 그리고 관을 준비하고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부고를 보낸다. 이 절차는 현대에 와서 많이 변형되었다. 호상소(빈소)를 마련하여 꽃과 영정 그리고 간단한 제물을 올린다.

2) 죽음의 처리과정

죽음 처리과정 중 현대에까지 내려오는 절차로는 입관(入棺),

성복(成服), 발인(發引), 운구(運柩), 삼우(三虞) 등이 있다.

0. 소령(小殮)과 대령(大殮) - 입관(入棺) : 소령이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말한다. 대령이란 소령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하는 의식으로서 소령을 한 이튿날, 즉 죽은 지 사흘 째 되는 날에 한다. 현대에 와서 이 절차는 간소화되었다. 염습이 끝나면 곧 입관한다. 입관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토막을 깔고 안치한 다음 관보로 덮어 둔다. 관을 가리고 영좌를 마련한다. 문상객은 부의를 해도 된다.
0. 성복(成服) : 대령이 끝난 이튿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하는 의식이다. 날이 밝으면 오복(五服)의 사람들이 각각 그 복을 입고 제 자리에 나가 서로 조상(吊喪)하며, 조석전(朝夕奠)과 상식(上食)을 올린다. 성복 절차는 현대에 와서 많이 간소화, 개량되었다. 입관이 끝나고 영좌를 마련한 뒤 성복을 한다. 요즘은 전통 상복인 굴건제복보다는 서양식 의복(남자는 검은 양복에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며, 여자는 흰색(혹은 검은색)치마 저고리를 입는다. 생활양식에 따라 검은색 양장을 하기도 한다. 북인은 검은색 헝겊이나 삼베로 만든 완장이나 상장, 머리핀을 착용)을 입는다. 성복을 한 후에는 문상을 하고 조문객의 조상을 받는다.
0. 발인(發引) : 발인은 영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견전(遺奠)이라 하여 조전 때와 같이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데 이것을 요즘은 발인제(發引祭)라 한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예를 올린다.
0. 운구(運柩) : 영구를 운반하여 장지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상여로 운구할 때 묘소에 가는 도중에 노제(路祭)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는 고인과 친한 조객이나 친척 중에서 뜻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음식을 준비했다가 지내는 것이다. 이 운구 절차는 현대에 와서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 즉 발인제가 끝난 뒤 영구를 장지나 화장장까지 장의차나 상여로 운반한다.
0. 삼우(三虞) : 초우(初虞), 재우(再虞)를 지낸 뒤 강일(剛日)을 당하면 삼우를 지낸다. 이때 비석(碑石)을 세운다. 이 삼우제는 현대식으로 위령제(慰靈祭)라 불려지기도 한다. 성분이 끝나면 묘소 앞으로 영좌를 옮기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 화장을 했을 때에는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사를 지낸다. 장례 후 3일째 되는 날에 첫 성묘를 하고 봉분이 잘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간단한 제사를 올린다. 이를 삼우라 한다. 요즘은 초우와 재우는 생략한다.

3)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

이 과정은 죽음을 삶과 단절된 것이 아닌 삶과 연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을 새로운 삶으로 인정하는 과정으로 본다 (장철수, 1984, 95). 전통적으로 기간은 삼년이었다. 이 삼년의 의미는 상제들의 근신 기간으로서, 상제들이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인 것이다. 복을 입는 상기(喪期)에 가족은 고인(죽음)과 함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 복을 벗는 절차인 탈상(脫喪)이 상징적으로 상장례의 끝이다. 전통적으로 이 과정에는 출곡(卒哭), 부제(祔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 길제(吉祭) 등이 있으나 현대에 와서는 지켜지지 않으며,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으로 복을 벗는, 즉 일상생활로 회귀하는 탈상 까지의 기간(상기)를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본다.

3. 상례문화와 관련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상례가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례문화를 학술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상례연구들은 장의관행 연구, 묘지제도 연구와 상례문화를 인류학적으로 연구한 자료 등에 국한된다(장현섭, 1996, 107). 그 외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경조비(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4), 장례비용(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1999), 장묘문화(대한주부클럽연합회, 1999), 장례문화(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6, 2000) 등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등은 있어 상장례 의식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유추할 수 있다.

그간 가정학 분야에서 연구되어진 의례연구로는 이길표(1989)의 가정의례 연구, 이정우·김명나(1990)의 혼례와 제례에 대한 의식 조사, 박혜인(1991)의 한국전통혼례 연구, 장상옥(2003)의 가정행사에 대한 의식 연구 등이 있으나 상례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상례를 다른 연구로는 장현섭(1996)이 현대 한국인의 상례관행을 죽음의 질이란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 연구는 상례 관행 중 임종장소, 장례장소, 장의주체, 조문객, 장의업자, 분묘관행만 다루었음)와 박혜인 외(2001a, 2001b)가 농촌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나누어 가족/친족 의례관행의 실태분석을 하면서 상례의 일부분(절차의 주도자, 장례장소, 상주의 복장)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농촌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혜인·신기영 2001a)에서 상주의 복장은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30대와 40대에서 서양식 상복인 검은 양복을 선호하였으며, 초졸자들이 전통적인 상복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었다. 또 박혜인 외(2001b)가 서울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장례의례(절차의 주도자, 장례장소, 상주의 복장)가 일반적 특성(연령, 성별, 종교,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제 의례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종교에 따라 상주의 복장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현송·이필도(1995, 33)는 장례장소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검토한 결과, 자택(집)에서 장례식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장소가 옮겨가고 있으며, 사망 장소도 점점 자택에서의 사망이 감소하고 병원에서의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 하였다. 이런 제 변화를 장현섭(1996, 131)은 사망 전 단계와 사망 후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의 죽음의 질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즉 조문(경조문화)은 전통적인 정서적 품앗이에서 경제적 품앗이로, 장의절차는 장의업자의 상업성과 장의 주체인 상주들의 무지함으로 의례의 상징성이 결여된 그냥 주검을 처리하는 기계적 과정으로 변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

연구의 대상자는 낙동강 남부지역⁵⁾ 그 중에서도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교사집단⁶⁾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혹은 학교별로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 조사는 2003년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 연구자가 직접 각 지역의 초·중·고교별로 학교를 방문하여 주로 40세 이상의 선생님들이면서 최근 3년 이내 가까운 가족의 장례를 치루어진 분들을 눈덩이 표집으로 찾아 실시하였다. 총 250부가 회수되었으나 최종분석에 사용된 부수는 234부이었다.

2. 측정도구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은 주로 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성장지역, 종교, 수입, 혼인상태, 형제순위 그리고 건강상태 등 8문항이었다. 연구대상자가 교사 집단이므로 학력과 직업은 본 논문분석에서 생략되었다.

장례문화에 관한 질문지는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다. 총 문항은 36문항으로, 상가방문횟수를 비롯

5) 낙동강(洛東江)유역은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위치하며 행정적으로는 경상남도, 부산, 경상북도, 대구를 포함한 분지지역으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유역권은 일찍이 가야문화와 신라문화가 꽂고 있던 곳으로 우리나라 전국토의 32.5%, 총 인구의 28.9%를 차지하는 생활권으로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생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산은 낙동강 남쪽지역(낙동강 생활유역권의 범위는 동쪽으로는 태백산맥에 의하여 동해안 생활권과 경계를, 서쪽으로는 소백산맥에 의하여 금강 생활유역권과 영산강 생활유역권과 경계를, 북쪽으로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한강유역 생활권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으로, 경상남도 서부의 해안지역을 따라 전개되는 해안지로 남해안 생활권과 경계를 이루는 권역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낙동강 유역의 문화는 다분히 분지문화적 성격이 강하여 다소 폐쇄적이며 따라서 고유한 생활양식을 만들고 그것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반용부, 1998).

6) 이 연구의 조사대상을 교사집단에 한정시킨 이유는 상장례 전체과정에 대한 조사연구가 전혀 없었고, 예비조사 단계에서 문항이 어렵다는 즉 상장례 절차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가 전반적으로 대단히 낮다는 점들이 지적되어 조사대상을 비교적 용어 등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교사집단에 한정시켜 보기로 하였음. 추후 이 연구가 다른 직업집단 혹은 교육수준별로 재조사가 되면 좋은 비교가 되리라 기대됨.

한 '일반적 상례문화' 21문항과 임종장소, 수시, 영정준비 등 '죽음을 맞는 과정'에 관한 4문항, 그리고 입관, 곡, 성복, 발인 등 의 '죽음을 처리과정'에 관한 10문항과 상기로 대표되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관한 1문항이다. 각 문항은 거의 명목변인으로 분석은 빈도분포 및 Chi Square 검증을 사용하였고 일부 문항에서는 t값으로 차이 검증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N=234)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여성 135명(57.7%), 남성이 99명(42.3%)이며,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47세로, 23세부터 72세까지 분포되나 20, 30대의 표집수가 적어 50세를 기준으로 2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그래서 50세미만이 149명(63.7%), 50세 이상이 85명(36.3%)이었다. 응답자들은 100% 학력을 대학졸업이고 직업은 교사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강상태는 '건강이 매우 좋다' 32.1%, '건강이 보통 혹은 그 이하이다'가 67.9%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4)

변 인	구 分	빈 도	%
성 별	남	99	42.3
	여	135	57.7
연 령	50세 미만	149	63.7
	50세 이상	85	36.3
성 장 지	대도시	157	67.1
	그 외	77	32.9
종교유무	종교인	151	64.5
	비종교인	83	35.5
종 교	기독교	72	49
	불교	75	51
형체순위	장남(녀)	108	46.4
	차남(녀)이하	125	53.7
총 수 입	400만원 이하	138	59.5
	400만원 초과	94	40.5
건강상태	건강이 매우 좋다	75	32.1
	보통 혹은 이하이다.	159	67.9

IV. 연구결과

1. 상례문화의 일반적 경향

1) 일반적 상례문화

<표 2>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상가 방문 횟수'에 대하여는 '직장동료 및 이웃'에 대한 방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연평균 상가 방문 횟수는 5회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인의 상부상조 정신이 가정의 정서적 결속에서 직업조직의 기계적 결속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가문화의 문제점에 관한 응답자의 의견⁷⁾은 '보통'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수의복과 관의 가격, 꽃과 화환의 진열, 장례식장 서비스, 장례비용에서 문제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장례경험에서 장례비용은 평균 95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의금은 1,26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1994년도에 조사한 665만원보다 상승된 금액이며, 소비자보호원이 1990년도에 조사 발표한 '장의물품(수의, 관 등) 가격에 대한 불만이 가정 높았다'라는 결과와 일치하여 향후 장의물품 가격의 공정거래 등에 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표 2> 일반적 상례문화

	구 分	평 균 (SD)
1년간 상가 방문 횟수	가족 및 친척	1.08 (1.41)
	친구 및 아는 사람	1.89 (2.07)
	직장동료 및 이웃	2.18 (2.15)
	방문수계	5.15 (4.34)
상가문화의 문제점	부의금	2.33 (.70)
	밤샘	3.00 (.75)
	음식 준비	2.70 (.75)
	손님 접대	2.68 (.73)
	수의복가격	3.52 (.63)
	관의 가격	3.48 (.63)
	꽃, 화환 진열	3.39 (.65)
장례식장 서비스	장례식장 서비스	3.19 (.65)
	장례비용	3.37 (.65)
	부의금	
경 비	장례비용	957 만원(706)
	부의금	1,263 만원(907)

7) 상가문화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문제 없다', 2점 '별로 문제없다', 3점 '어느정도 문제있다', 4점 '매우 문제 많다')로 높은 점수일수록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3> 일반적 상례문화

		빈도 (%)
장례식 장소	집	30 (12.8)
	병원장례식장	153 (65.4)
	전문장례식장	37 (15.8)
	기타	3 (1.3)
조문방식	상주측에 기끼이 따른다	130 (55.6)
	상주측에 마지못해 따른다	21 (9.0)
	그냥 내가 하던 식대로 한다.	78 (33.3)
	기타	5 (2.1)
음식대접	집에서 장만	29 (12.4)
	주문	181 (77.4)
	기타	13 (5.6)
장례일수	3일장	198 (84.6)
	4일장	17 (7.3)
	5일장	9 (3.8)
	기타	1 (0.4)
장례방식	매장	128 (54.7)
	화장	106 (45.3)
(아들이 없을 때 딸이 상주가 되는 것)	딸이 상주가 되는 것은 아무 관계없다	218 (93.2)
	그래도 친척 중 성인남자가 해야	13 (5.6)
(장례절차를 결정할 때)	거의 다 의논하여 결정	132 (56.4)
	일부분만 의논하여 결정	75 (32.1)
	거의 주 상주 혼자 결정	10 (4.3)
	장례식장의 지시에 따랐다	6 (2.6)
장례이후 가족관계	더 좋아졌다	36 (15.4)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	147 (62.8)
	더 나빠졌다	14 (6.0)
장례를 경험하며 어려웠던 점	음식준비	19 (8.1)
	재정적인 문제	21 (9.0)
	매장/화장 결정	34 (14.5)
	묘지문제	42 (17.9)
	계속된 밤샘으로 인한 피로	61 (26.1)
	가족 및 친인척 갈등	17 (7.3)
	기타	8 (3.4)

<표 3>을 보면, 최근의 상례경험에 관한 질문을 통해 과반수이상(65.4%)이 병원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문장례식장의 이용 빈도(15.8%)도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문방식⁸⁾에서는 '상주 측에 기끼이 따른다'는 의견이 55.6%를 차지하

8) 조문행위에서 '그냥 내가 하던 식대로 한다'는 응답이 33.3%로 높게 나타났다. 조문이란 상주와 문상객을 하나로 결속시켜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내가 하던 식대로 한다는 응답'이 조문행위에서 공동체적 감정 못지 않게 본인의

였으며, 내 방식대로 조문한다는 의견도 33.3%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에 따른 조문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음식대접에서는 대체로 '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편의위주로 보다 전문화 상업화되는 상례문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장례일수(상기)는 3일장이 84.6%를 차지하였으며 장례형태는 매장이 54.7%, 화장이 45.3%를 차지하여 매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장례장소로 자택이 사용되는 경향은 확실히 감소되고 있다. 이현송·이필도(1995)에 의하면 1985년에 조사된 연구에서는 장례장소가 자택이라고 응답한 것이 60%이었고, 1990년 조사에서는 50%, 1993년 37.5%이었다. 그러나 2003년 실시된 본 연구에서는 12.8%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편의주의와 전문성을 선호하는 가치관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상주가 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 응답자(93.2%)가 '딸이 상주가 되는 것은 아무 관계없다'라고 응답하여 장의 주체의 아들중심성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장례절차에 대한 가족과의 의논정도는 '거의 다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의견이 과반수(56.4%)를 차지하였다. 또한 장례이후 가족관계는 '더 좋아졌다'는 의견이 15.4%로 장례문화가 현대 '핵가족화' 시대에서 친인척으로 확장되는 가족의 지원과 지지,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례를 경험하며 어려웠던 점에서는 묘지(17.9%)와 매장/화장을 결정(14.5%)하는 등의 장묘에 관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피로감(26.1%)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1995년부터 시행된 서울 연세의료원의 장례식장 조문시간 제한제도 등은 유족의 피로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상례문화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년에 조상(혹은 문상)경험은 5-6회이며, 조문형식은 상주 측의 의견에 따르며(55.6%), 장례는 거의 병원장례식장에서 거행된다(65.4%). 장묘문화는 매장과 화장 요구가 비슷하며, 장례비용은 평균 957만원, 부의금 규모는 1263만원이었으며,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한 것은 수의 값, 판 값을 포함한 장례비용과 장묘방안, 밤샘피로 등이었다.

2) '죽음을 맞는 과정'의 일반적 경향

죽음을 맞는 과정에서는 가족들이 그 절차를 주관 또는 창출하는 의례인 임종, 수시, 설전, 부고 및 영정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4> 참조).

임종장소는 병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63.7%), 수시를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장례사(46.9%), 가

종교적 관점이 중요함을 제시해 주며 우리 사회의 제의례 변용에 종교적 변수의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족(42.1%)이 유사한 비중으로 응답되었다. 영정준비에 대하여는 본인이 건강할 때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의견(75.4%)이 가장 많았다. 이는 가족 내에서 죽음에 대한 언급이 아직도 금기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한 부분으로 영정 준비에 있어 가족 참여가 부담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의 임종 시 참석하지 못한 자식의 책무에 대한 인식은 3.21/5점으로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4> '죽음을 맞는 과정'의 일반적 경향

		빈도 (%)
임종 장소	집	76 (33.6)
	병원	144 (63.7)
	기타	6 (2.5)
수시	가족	96 (42.1)
	의사	18 (7.9)
	장례사	107 (46.9)
	기타	7 (3.1)
영정 준비	본인이 건강할 때 준비한다.	175 (75.4)
	죽음 즈음에 가족이 준비한다.	44 (19.0)
	돌아가시면 즉시 준비한다.	13 (5.6)
		평균 (SD)
부모의 임종을 보지 못한 자녀에 대한 태도 ⁹⁾		3.21 (1.31)

정리하면, 임종 장소는 대개 병원(63.7%)이며, 수시는 가족과 장례사가 행하며, 영정은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자료들에 의하면 점점 사람들은 가장 편안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며 죽은 장소로 병원을 선택하며, 과거에는 자녀가 임종을 지키는 죽음을 가장 표준화된 죽음의 순간으로 인식하였으나 가족의 구성과 형태상의 변화 등으로 자녀가 부모의 임종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다.

3) '죽음처리 과정'의 일반적 경향

죽음처리 과정에는 염습, 입관(곡), 성복, 발인, 운구, 하관, 성분, 위령제가 현재 실행되고 있으나 가족들이 그 절차에 크게 관여할 수 없는 염습, 하관, 성분은 제외한 나머지 절차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5> '죽음처리과정'의 일반적 경향

		빈도 (%)
입관	직계가족만	139 (59.9)
	직계가족과 가능한 친인척	78 (33.6)
	직계가족·친인척·절친한 친구와 동료까지	14 (6.0)
	기타	1 (.4)
곡	해야 한다	32 (13.9)
	안해도 된다	97 (42.0)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102 (44.2)
성복	전통상복이 좋다	41 (17.7)
	양장	148 (63.2)
	평상복에 상장정도만 한다	42 (17.9)
성복의 범위	직계가족만	155 (67.1)
	4촌 내의 친인척까지 포함	66 (28.6)
	8촌 내의 친인척까지 포함	10 (4.3)
아들과 사위의 성복 차이의 필요성	차이가 있어야 한다	51 (22.1)
	차이가 없어야 한다.	180 (77.9)
	며느리와 딸의 성복 차이의 필요성	24 (10.3)
	차이가 있어야 한다	208 (88.9)
발인에 참석해야 하는 범위	직계가족만	21 (9.0)
	직계가족과 가능한 친인척	107 (45.7)
	직계가족·친인척·절친한 친구와 동료까지	47 (20.1)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57 (24.4)
운구를 해야 하는 사람	반드시 친인척이어야 한다	13 (5.7)
	고인을 아는 어떤 사람이 해도 된다	187 (81.3)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	30 (13.0)
위령제에 대한 생각	전통적 관행이므로 무조건 따른다	14 (6.0)
	가급적 따른다	135 (58.4)
	해도 안해도 상관없다	58 (24.8)
	할 필요가 없다	24 (10.3)
삼우제에 대한 생각	꼭 해야 한다	99 (43.0)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110 (47.8)
	할 필요가 없다	21 (9.1)

9) 부모의 임종을 보지 못한 자녀에 대한 태도조사는 '1. 절대적으로 잘못했다. 2. 조금 잘못했다. 3. 잘 모르겠다. 4. 조금 그럴 수도 있다. 5. 전혀 나무랄 일이 아니다'로 응답됨.

<표 5>에 의하면, 죽음처리 과정 중 입관에 참석해야 하는 범위에 관한 질문에서는 직계가족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 59.9%를 차지하여 의례에 참석해 하는 가족 범위가 다소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장례문화를 상징하던 상주들의 '곡'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13.9%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장례문화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성복에 관한 의견에서는 양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63.2%를 차지하여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성복의 범위에 대하여는 직계가족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 67.1%를 차지하여 역시 장례문화의 주체로서의 가족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들과 사위, 딸과 며느리의 복장은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7.9%, 88.9%로 나타났으나 실제 양장에서는 주상과 다른 아들은 상장(완장)에서 차이가 나며 여성이 딸과 며느리는 차이가 없다.

발인에 참석해야 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직계가족만 참석하면 된다는 의견이 9.0%로 입관, 성복 등의 과정에 비하여 참석 기대 범위가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운구를 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질문에서는 고인을 아는 어떤 사람이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대부분(81.3%)을 차지하였으며,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한다는 의견도 13.0%를 차지하여 절차의 상징성 보다 편의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죽음처리과정에서 현대에서는 거의 생략되고 있는 초우를 대신하고 있는 위령제는 따른다는 의견이 64.4%로 나타났으나 안해도 상관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35.1%로 다수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후 장례문화가 보다 더 간소화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죽음 처리 과정에서 입관 시 직계가족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 태도가 높으며(59.9%), 곡은 꼭 해야 되는 것으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상복은 양장을 선호하며(63.2%), 성복 범위도 직계가족(67.1%)에 치우치고 있었으며 가족지위에 따른 복의 차이는 80%이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발인참석범위는 아직 다양하며 운구도 친인척에 국한시키지 않았으며, 위령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64.6%), 삼우제의 수행여부에는 일관된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4)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반적 경향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탈상까지의 기간 즉 상기(장례식부터 상복을 벗는 날까지)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즉 현대인은 죽음처리과정을 마친 뒤, 산 사람과 죽은 자가 함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가이다.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는 1년상 이상 4.3%, 100일 19.7%, 삼우(3일)까지가 75.9%로 응답하여 장례의식이 보다 간소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반적 경향

		빈도 (%)
상기	삼우	176 (75.9)
	탈상(100일)	46 (19.7)
	1년상 이상	10 (4.3)

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상례문화의 차이¹⁰⁾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반적 상례문화의 차이

<표 7>에서 <표 11>에 의하면, 일반적 상례문화에 대한 척도는 성별과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표 7> 성별에 따른 일반적 상례문화의 차이

		성별	
		남	여
상가방문 횟수	가족 및 친척	평균 (SD)	.1.41 (1.54) (.1.28)
		t값	3.042**
	친구 및 아는 사람	평균 (SD)	2.71 (2.32) 1.29 (1.65)
방문수계	직장동료 및 이웃	평균 (SD)	2.60 (2.29) 1.87 (2.00)
		t값	2.564*
	손님 접대	평균 (SD)	6.71 (4.63) 4.00 (3.74)
상가문화의 문제점	음식 준비	평균 (SD)	2.57 (.74) 2.80 (.74)
		t값	-2.405*
	딸이 상주가 되는 것은 아무 관계없다	평균 (SD)	2.47 (.74) 2.83 (.74)
상주의 성별	그래도 친척 중 성인남자가 해야 한다	89 (89.9%)	129 (97.7%)
		10 (10.1%)	3 (2.3%)
	df = 1 $\chi^2 = 6.528*$		

* p <.05 ** p<.01 *** p<.001

(1)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상가방문횟수와 상가문화에 대한 의견 중 음식준비 및 손님접대, 그리고 상주의 성별에 관한 의견에서 차이를 보였다. 상가방문횟수에서는 남

10) 본 논문에서는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할표 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만 변수별로 언급하고자 한다. 즉, 인구학적 특성으로 사용한 변인 성별, 연령, 성장지, 종교유무, 종교, 총수입, 건강상태, 형제순위를 독립변수로 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만 정리하고자 한다.

성의 경우 '친구 및 아는 사람'에 대한 방문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직장동료 및 이웃'에 대한 방문 횟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상가방문횟수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상가방문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음식준비'와 '손님 접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주의 성별에 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남성 집단에서 상주가 남자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50세 이상 집단에서 상가방문횟수가 보다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문화에 대한 의견 중 성별 차이를 보인 '음식준비'는 50대 미만 집단에서 50대 이상 집단 보다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50세 미만 집단에서 장례비용의 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령에 따른 일반적 상례문화

		연령	
		50세 미만	50세 이상
상가방문 횟수	가족 및 친척	평균 (SD)	.92 (1.33)
	친구 및 아는 사람	평균 (SD)	1.65 (1.97)
	직장동료 및 이웃	t값	-2.240*
방문수계	친구 및 아는 사람	평균 (SD)	2.31 (2.22)
	직장동료 및 이웃	t값	-2.339*
	방문수계	평균 (SD)	2.68 (2.36)
상가문화의 문제점	음식 준비	평균 (SD)	4.46 (4.10)
	음식 준비	t값	-3.267***
	직장동료 및 이웃	평균 (SD)	6.35 (4.52)
경비	장례비용	평균 (SD)	2.78 (.73)
	장례비용	t값	2.060*
	방문수계	평균 (SD)	2.57 (.77)
	친구 및 아는 사람	평균 (SD)	1,129만원 (786)
	직장동료 및 이웃	t값	793만원 (584)
	방문수계	t값	2.232*

* p <.05 ** p<.01 *** p<.001

(3) 조문방식에 관한 문항에서는 종교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기독교 집단에서는 '그냥 내가 하던 식대로 조문 한다'라는 문항이 45.1%를 차지하여 불교 집단 (22.7%)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9> 종교에 따른 일반적 상례문화(조문방식)

조문방식	종교	
	기독교	불교
상주측에 기꺼이 따른다	33 (46.5%)	51 (68.0%)
상주측에 마지못해 따른다	5 (7.0%)	6 (8.0%)
그냥 내가 하던 식대로 조문 한다	32 (45.1%)	17 (22.7%)
기타	1 (1.4%)	1 (1.35%)
	df = 3	x ² = 8.437*

* p <.05

(4) 최근에 경험한 장례 경험 중 장례형태에 관한 질문에서는 가정의 총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매장형태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총수입에 따른 일반적 상례문화(장례형태)

장례형태	총수입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매장	65 (48.5)	62 (68.1)
	69 (51.5)	29 (31.9)
	df = 1	x ² = 8.490**

** p<.01

<표 11> 건강상태에 따른 상가방문 횟수

	건강상태	
	매우 좋다	보통 혹은 그 이하
가족 및 친척	평균 (SD)	1.31 (1.74)
	t값	1.485
	친구 및 아는 사람	평균 (SD)
직장동료 및 이웃	2.28 (2.25)	.97 (1.23)
	t값	1.989*
	방문수계	평균 (SD)
방문수계	2.35 (2.42)	1.70 (2.02)
	t값	.815
	경비	평균 (SD)
경비	5.93 (5.08)	4.78 (3.91)
	t값	1.906
	친구 및 아는 사람	평균 (SD)

* p <.05

(5)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친구 및 아는 사람'에 대한 방문 횟수에서 건강이 '매우 좋다'는 집단에서 보다 많은 방문 횟수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 상례문화에 관하여 인구학적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상가방문 횟수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조문방식은 종교에 따라, 장례형태는 가정의 총수입에 따라, 손님과 음식접대는 성별에 따라, 딸의 상주역할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장례비용은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죽음을 맞는 과정'에 대한 차이

인구학적 특성으로 사용한 변인 성별, 연령, 성장지, 종교유무, 종교, 총수입, 건강상태, 형제순위를 독립변수로 하여 죽음을 맞는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만 정리하였다.

<표 12>에 의하면, 죽음을 맞는 과정에서는 ‘영정준비’에서만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에는 ‘죽음 즈음에 가족이 준비 한다’는 의견이 건강상태가 보통 혹은 그 이하인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건강할 때 준비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외 입종장소, 수시 등은 인구 학적 특성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건강상태에 따른 ‘죽음을 맞는 과정’에 대한 차이

	건강상태	보통 혹은 그 이하	
		매우 좋다	보통 혹은 그 이하
영정 준비	본인이 건강할 때 준비해두어야 한다	51 (68.0%)	124 (79.0%)
	죽음 즈음에 가족이 준비 한다	21 (28.0%)	23 (14.6%)
	돌아가시면 즉시 준비한다.	3 (4.0%)	10 (6.4%)
		$df = 2$	$x^2 = 6.090*$

* p <.05

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죽음처리과정'의 차이

복장에 관한 견해에서는 여성이 양장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복의 범위에 관한 문항분석 결과에서는 여성 집단에서 직계가족만 있으면 된다는 의견이 보다 많이 응답되었다. 그리고 아들과 사위, 며느리와 딸의 성복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 집단에서 보다 많이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4>에 의하면 운구를 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문항에서
는 50세 이상 집단의 90% 이상이 고인을 아는 어떤 사람이 해
도 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50세 미만 집단에서는 장례식장에

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17.9%)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15>에 의하면 성장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대도시 지역 거주민이 양장을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차이 분석(<표 16> 참조)에서는 ‘복장에 대한 견해’와 ‘성복의 범위’, ‘곡’, ‘위령제’, ‘삼우제’에서 그 차이를 보였으며 ‘복장’에 관하여는 기독교 집단에서 양장에 대한 선호가 보다 높았고, 직계가족만 입으면 된다는 의견이 불교집단에 비해 보다 많이 응답되었다. 전통적 상주의 역할인 곡에 관하여는 기독교 집단에서 ‘안 해도 된다’ 혹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위령제에 관한 견해에서는 기독교 집단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52.8%를 차지하여 ‘가급적 혹은 무조건 따른다’는 의견이 76%를 차지한 불교집단과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삼우제에 관한 문항분석 결과에서는 불교집단에서는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상(54.7%)을 차지한 반면 기독교집단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상(62%)을 차지하여 차이를 보였다.

<표 13> 성별에 따른 ‘죽음처리과정’의 차이

* p <.05 ** p<.01

<표 14> 연령에 따른 '죽음처리과정'의 차이

		연령	
		50세 미만	50세 이상
운구	반드시 친인척이어야 한다	10 (6.9%)	3 (3.5%)
	고인을 아는 어떤 사람이 해도 된다	109 (75.2%)	78 (91.8%)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	26 (17.9%)	4 (4.7%)
	df = 2 $\chi^2 = 10.075^{**}$		

** p<.01

<표 15> 성장지에 따른 '죽음처리과정'의 차이

		성장지	
		대도시	그 외
복장에 대한 견해	전통상복이 좋다	23 (14.8%)	18 (23.7%)
	양장	110 (71.0%)	38 (50.5%)
	평상복에 상장정도만 한다	22 (14.2%)	20 (26.3%)
	df = 2 $\chi^2 = 9.869^{**}$		

** p<.01

<표 16> 종교에 따른 '죽음처리과정'의 차이

		종교	
		기독교	불교
복장에 대한 견해	전통상복이 좋다	6 (8.5%)	17 (22.7%)
	양장	53 (74.6%)	50 (66.7%)
	평상복에 상장정도만 한다	12 (16.9%)	8 (10.7%)
	df = 2 $\chi^2 = 6.043^{*}$		
성복의 범위	직계가족만	52 (73.2)	40 (54.1)
	4촌내의 친인척까지 포함	18 (25.4)	26 (35.1)
	8촌내의 친인척까지 포함	1 (1.4)	8 (10.8)
	df = 2 $\chi^2 = 8.406^{*}$		
곡	해야 한다	5 (7.0%)	16 (21.6%)
	안해도 된다	34 (47.9%)	26 (35.1%)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32 (45.1%)	32 (43.2%)
	df = 2 $\chi^2 = 6.769^{*}$		

		종교	
		기독교	불교
위령제	전통적 관행이므로 무조건 따른다	2 (2.9%)	7 (9.3%)
	가급적 따른다	31 (44.3%)	50 (66.7%)
	해도 안해도 상관없다	22 (31.4%)	16 (21.3%)
	할 필요가 없다	15 (21.4%)	2 (2.7%)
	df = 3 $\chi^2 = 17.972^{***}$		
삼우제	꼭 해야 한다	27 (38.0%)	41 (54.7%)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33 (46.5%)	31 (41.3%)
	할 필요가 없다	11 (15.5%)	3 (4.0%)
	df = 3 $\chi^2 = 10.074^{*}$		

* p <.05 ** p<.01 *** p<.001

총수입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표 17> 참조), 400만원 이하 인 집단에서는 운구를 반드시 친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9.0%로 1.1%를 나타낸 400만원 이상 집단과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표 17> '죽음처리과정'의 차이

		총수입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운구	반드시 친인척이어야 한다	12 (9.0%)	1 (1.1%)
	고인을 아는 어떤 사람이 해도 된다	107 (79.9%)	78 (83.0%)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	15 (11.2%)	15 (16.0%)
	df = 2 $\chi^2 = 7.053^{*}$		

* p <.05

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의 차이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인 상기에 관한 응답은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만을 보였으며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탈상'에 대한 견해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삼우'까지만 복을 입겠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표 18>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의 차이

	건강상태		
	매우 좋다	보통 혹은 그 이하	
상기	53 (73.6%)	123 (80.4%)	
	19 (26.4%)	27 (17.6%)	
1년상	0	3 (2.0%)	
	df = 2	$\chi^2 = 6.542*$	

* p <.05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반 장례 의례에 대해 다른 태도 등을 가지고 있는 가를 분석한 결과, 1단계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영정준비 만이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건강이 매우 좋은 집단은 건강이 좋지 않은 집단보다 죽음 즈음에 가족이 준비한다는 즉, 영정준비에 대한 의식이 낮았다. 임종장소, 수시 등은 인구학적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2단계 죽음처리 과정에 해당되는 의례 중 곡은 종교에 따라, 성복은 성별, 성장지, 종교에 따라, 운구, 위령제, 삼우제는 연령, 종교, 수입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불교집단의 곡 허용성이 높으며 성복에 있어서 여성과 기독교집단에서 직계가족만 입으면 된다는 의견이 높았고 가족지위에 따라 성복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보다 남성 집단이 높았다. 3단계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상기와 건강상태가 관련성이 있었다.

IV. 나오며

상례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조선조 5백 년 동안 준수되어 왔다. 그러나 근세(近世)로 내려오면서 이 상례는 점차 간소화되어 현금에는 아주 간단한 의식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더욱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적 의례가 널리 퍼져 우리나라의 전통 상장례는 간소화되고 있는 경향을 띠운다.

이 연구는 조사연구로, 전통적 상장례 절차가 현대에 와서 어떤 절차로 변용되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이론적 고찰에서 복잡한 상장례 중 비교적 지금까지 수행되고 있는 것 중 가족들의 개입 내지 의사결정이 필요한 의례만 조사하였다. 상장례 과정을 세 개 과정. 즉 1단계 죽음을 맞는 과정(임종, 수시, 발상, 설전), 2단계 죽음 처리 과정(염습, 입관, 성복, 발인, 운구, 하관, 성분, 위령제), 3단계 죽음이 머무는 과정(상기)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지역과 대상은 낙동강 남부지역인 부산에 거주하는 교사 234명에 한정하였으며, 연구자가 문헌고찰 및 현장 조사를 거쳐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상례문화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년에 조상(혹은 문상)경험은 5-6회이며, 조문형식은 상주 측의 의견에 따르면(55.6%), 장례는 거의 병원장례식장에서 거행된다(65.4%). 장묘문화는 매장과 화장 요구가 비슷하며, 장례비용은 평균 957만원, 부의금 규모는 1263만원이었으며,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한 것은 수의 값, 관 값을 포함한 장례비용과 장묘방안, 밤샘피로 등이었다.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상가방문 횟수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조문방식은 종교에 따라, 장례형태는 가정의 총수입에 따라, 손님접대와 음식접대는 성별에 따라, 딸의 상주역할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장례비용은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죽음을 맞는 과정에서 보면 임종 장소는 대개 병원(63.7%)이며, 수시는 가족과 장례사가 행하며, 영정은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의 제반 의례 중 영정준비 만이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을 뿐 임종장소, 수시 등은 인구학적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죽음 처리 과정에서 보면, 입관 시 직계가족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 태도가 높으며(59.9%), 곡은 꼭 해야 되는 것으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상복은 양장을 선호하며(63.2%), 성복 범위도 직계가족(67.1%)에 한정시키는 경향이 높으며, 가족지위에 따른 복의 차이는 80%이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발인참석범위는 아직 다양하며 운구도 친인척에 국한시키지 않았으며, 위령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64.6%), 삼우제의 수행여부도 일관된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과 제 의례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곡은 종교에 따라, 성복은 성별, 성장지, 종교에 따라, 운구, 위령제, 삼우제는 연령, 종교, 수입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보면, 상기는 삼우 즉 장례식을 치르고 3일간 정도를 복을 입는 적절한 기간으로 보고 있었다(75.9%).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 의례를 살펴본 결과 상기에 관련이 있는 변인은 건강상태뿐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전체적 상장례 절차의 감소와 반비례되게 상장례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전통적 상례절차는 많이 축소되었고 의례형식도 간소화되었다. 그러나 의례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선 전반적 상례문화 변화가 상례의 상업화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묘에서 매장이 여전히 과반수의 응답으로 선호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화장문화에 맞는 수의와 관의 재질 선택의 폭이 더 넓어야 되고, 전문장례식장(병원 포함)에서의 장례가 보편화되는 만큼 설전(영정과 꽃 등)경비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장례를 경험하며 힘든 점으로 계속적인 밤샘으로 인한 피로, 묘지문제, 장묘의 선택, 그리고 재정과 음식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본 조사가 실시된 지역이 대도시 교사집단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사회적 상부상조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1년에 취업남성의 경우 평균 7회, 취업여성의 경우 평균 4회 정도 상가방문의 경험을 하는 것은 적지 않는 회수이다. 따라서 상장례문화도 가족중심으로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례식장에서 다소 형식적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분위기인 만큼 밤샘 등의 과도한 활동은 조문객과 상주들에게 다 긍정적이지 않으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지속적인 관혼상제문화의 간소화와 표준화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전문장례식장의 자발적 지침에 의해 관행을 바꾸는 적극적 방안도 있다고 본다.

셋째, 상례에서 성별과 종교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에 대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가방문 횟수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으며, 남성은 친구를 중심으로 여성은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은 음식준비와 손님접대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상복도 양장을 더욱 선호하였다. 성복의 범위에 대한 태도도 여성이 직계가족에 한정시킨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가족지위(아들과 사위/ 며느리와 딸)에 따라 상복에 차이가 없어야 됨을 더 지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성교사가 남성교사에 비해 상장례문화에서 성복의 범위를 좀 더 넓혔을 뿐만 아니라, 여성교사는 남성교사에 비해 상장례문화 확산이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통적 가족문화의 변화에 여성의 더 지지적인 사회현상과 일관된다고 볼 수 있으나, 어떠한 인구학적 변인보다 성별 변인이 다양한 상장례문화에서 차이를 만드는 주요 변수로 지적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의 상례문화에 대한 저항은 다른 종교인에 비해 많이 나타나며 갈등 시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런 종교적 견해가 한 가족 안에서 어떤 갈등을 유발하며, 나아가 상장례를 경험하면서 가족의 화합보다는 가족의 분열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족의례와 종교적 변인 간의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례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가름해 볼 때 향후 종교적 관점을 넘어 장례 절차를 거치면서 가족관계가 세대간 어떠한 역동성을 가지며(화합, 친밀감, 갈등의 측면 등에서) 재구성되는지도 고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넷째, 더욱 의례의 가치, 목적, 절차 등에 대한 가족원들의 예비사회화가 필요하다. 장현섭(1996, 116)은 한국인의 상례에 대한 무지함을 지적하면서 장의주체인 가족뿐 아니라 장의사들까지 죽음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의례를 통해 가족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관행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 가족 특유의 의례 절차 등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가족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결혼식은 개인 선호에 따라 상당한 형식 파괴가 일어나고 있음).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교사집단과 40~50대에 한정시켰지만, 추후 노년기나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장례 의식 및 태도 조사도 필요하며, 특히 지역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의 차이를 조사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접 수 일 : 2004년 07월 15일
□ 심 사 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9월 24일

【참 고 문 헌】

- 김연규(1992). **한국의 전통장례의식과 개신교 장례의식의 비교 연구**. 감리교 신학대 석사학위 논문; 재인용 한국여성단체연합(1996).
- 김태현·손정숙(1984).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4, 3-19.
- 남민이(2001a). 장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9-16, 59-77.
- 남민이(2001b). 현대생활 속의 상장례. 학문사. 71-81.
- 박부진(2000). 전통적 생활문화의 전승과 변화: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서울 문화연구**, 3권, 11-33.
- 박혜인(1991). “한국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이효재 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또하나의 문화**. 17-73.
- 박혜인·신기영(2001a). 농촌지역의 가족/친족의례 실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35-154.
- 박혜인·조은숙(2001b). 도시지역의 가족/친족의례 실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67-184.
- 박혜인(2001c).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6(1), 31-54.
- 반용부(1998). 낙동강유역의 지질과 지형. 신라대학교부설낙동강 연구원. **낙동강연구논총 창간호**, 1-31.
- 안혜숙·주영애·김인옥(2002).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신정. 53-60.
- 안호용(1989). 조선전기 상례의 변천과 그 사회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서석·우영희·지영숙·김양희·채옥희(1988). 현대사회와 가정문화. 수학사. 286-288.
- 이기영 외(1996). **광복후 가정생활의 변화**. 서울대 출판부.
- 이기숙(2003). 가족의례: 한국인의 죽음의례 과정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6, 175-208.
- 이길표(1989). 도시주부의 가정경영관과 가정의례와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42-164.
- 이정우·김명나(1990).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05-124.
- 이차숙(1988). **한국가정생활사**. 교문사. 129-142.
- 이필도(1999). 바람직한 장묘문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접근. 한

- 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송 · 이필도(1995). 장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임재해(1990/2000). 전통 상례. 대원사. 8-35.
장상옥(2003). 가정행사의 사회화 실태와 모녀세대간 시행의식 -
진주시 여대생 가정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41-50.
장철수(1984/1988).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원,
90-102.
장현섭(1996). 현대 한국인의 상례관행과 개선방안. 가족학논집,
8호, 105-140.
정현숙 · 유계숙(2001). 가족관계. 교문사. 565-615.
조남훈 외(1993). 가정의례에 관한 의식행태 조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조선일보사(1988/1999).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올바른 가정의
례. 132-160.
한국정신문화원(1988). 조선시대 관혼상제Ⅱ.
대한주부클럽연합회(1999).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조사. 비매품.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1999). 한국인 장례비용 조사보고서.
비매품.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4). 경조비 실태조사. 비매품.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6).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비
매품.
한국여성단체협의회(2000). 장례문화와 죽음에 관한 의식조사.
비매품.
Bossard, J. H. S. & Boll, E.(1950). *Ritual in family living*.
Univ. of Pennsylvania Press; 재인용 정현숙 · 유계숙
(2001, 566).